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주소: 전주시 완산구 895신동 344-21 완경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음 12월 1일) 제17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대학 졸업자들,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

취업률은 56.5%로 전년보다 3.6% 감소
계열별로 의학계열이 86.2%로 가장 높아
취업 준비생 “기업들조차 신규채용에 부정적”

전북지역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56.5%에 불과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도 의학계열이어서 청년 취업난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적 취업난이 초래한 저임금상태에서 주변에 널린 고급리대출의 유혹을 받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학자금 등 소액 대출이 저소득, 저신용으로 이어지고, 고급리대출로 채무악순환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를 받게 되는 청년층 부채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대학 졸업자 취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6.5%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이 자료는 청년 계층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통계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동향을 살펴보는 등 취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55.2%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전문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59.2%로 4.9% 감소했다.
전북지역 일반 대학의 계열별 취업률은 의학 계열이 86.2%로 가장 높고 이어 공학 61.1%, 자연과학 59.4%, 인문·사회 계열 49.4%, 예체능 계열 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와 저성장 구조 고착화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모든 계열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대학 수는 일반대학 9개, 전문대학 9개 등 총 18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20~29살 인구 1000명 당 대학 수는 0.08개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대학생 수는 12만8599명으로 일반대학 학생 수는 9만4,571명(78.2%), 전문대학 학생 수는 2만16,288명(21.8%) 등이었다.

휴학생 비율은 일반대학이 29.4%, 전문대학이 35.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의 20~29세 인구는 2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2.1%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40년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7.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 준비생 A씨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단기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



아듀 2016년!
정유년 새해에는 굳건하게 서있는
저 첨성대처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밤 하늘 별빛이래 천년 풍파에도 첨성대는 굳건하게 서 있다. 2016년 병신년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피해, 경기 침체 등 희망보다는 절망, 상처가 많은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지진 이겨낸 첨성대처럼 상처를 딛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해본다.

화로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12월 29일자로 발행되는 지령 제1716호를 끝으로 전주매일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내년 1월 2일, 독자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한해동안 저희 전주매일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 여러분들께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잘한 것보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냉철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내용의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채찍을 들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년 새해,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매일신문사 임직원 일동

17년째 찾아온 '얼굴없는 천사' "따뜻한 선물 말없이 남기고 갑니다"

전주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천사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세밀한과를 녹였다.

28일 오전 11시 8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주민센터 뒤 공원 나무 밑에 있으니 가져가시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딱 한 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

전화를 받은 정세현 노송동 민생생활지원팀장은 "목소리로 보아 50대 중년 남자로 보였다"면서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기고, 미처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 남성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주민센터 옆 기부 천사킴터를 찾아가보니 화단에는 A4용지 박스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1만원권 지폐 다발,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이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5,021만7,940원으로 집계됐다.

천사가 남긴 편지로 보이는 A4용지에는 컴퓨터로 타이핑한 큰 글씨체로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힘든 한해였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얼굴없는 천사'가 기부한 금액을 세고 있다.

노송동 주민센터 앞에
5021만7940원 기부
성금은 소외계층 위해 사용

된 이름으로,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남몰래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목소리로 볼 때 40~5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외에는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천사가 올해로 17년째 총 18차례에 걸쳐 몰래 놓고 성금은 총 4억9,785만9,500원에 달한다.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전국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늘어나게 하는 '천사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천사의 남개는 훈풍으로 이어져 전주시에겐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밤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지 않고

후원에 참여하는 천사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시는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금을 두고 가던 장소에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천사마을'로 자리 잡은 노송동의 지역정체성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부 천사킴터도 조성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한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다"며 "얼굴 없는 천사와 천사시민들이 배운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GO TO THE KUNSAN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전국 유일 PROMISE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S-AD)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